

1

소토코모리, 일본 밖을 떠도는 젊은이들

— 시대의 폐색으로부터 탈출, 혹은 신자유주의의 희생양?

권숙인



■ (위) 소토코모리들의 메카로 떠오른 방콕의 카오산 지구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2008년 8월 31일자 『산케이신문』의 '소토코모리' 관련 기사, 고바야시 기세이의 베스트셀러 『아시안 재패니즈』, 시모가와 유지의 『일본에서 내리는 젊은이들』



1. 들어가기

젊은이들은 항상 문제적이다. 사실인지 우스갯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요즘 것들은……”으로 시작되는 탄식의 글귀가 적혀 있다니 기성 세대가 느끼는 세대차이나 걱정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젊은 세대는 곧 미래이자 한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 까닭에 항상 관찰과 규율, 희망과 걱정의 대상이 된다. 그 어떤 세대보다 수식과 명명이 많이 붙게 되는 이유이다. 히키코모리, 워킹푸어, 취직방하기¹⁾, 로스제네²⁾, 프리터, 니트(NEET)족³⁾, 기생충 독신자(패러사이트 싱글), 하류사회, 하류지향, 희망격차 등등, 최근 일본의 젊은 세대를 지칭하거나 형용하는 용어들은 ‘잃어버린 20년’이 회자되는 일본사회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보여 주는 하나의 의미심장한 창구이다. 기실 전후 일본사

* **지은이** | **권숙인**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Politics of Furusato in Aizu, Japan : Local Identities and Metropolitan Discourses”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은 일본의 주변지역인 아이즈 지역에서 외부 자본과 담론에 대응/항하며 자신들의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에스노그래피이다. 주변부 집단의 정체성, 이주와 이산,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식민지배기 조선 내 일본인 학교」, 최근 저서로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가 있다.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HK)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수행하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짐(과제번호 KRF-2008-361-B00006).

1) 거품경제 붕괴 여파로 취직이 힘들어진 상황, 특히 1993~2005년 사이를 지칭. 장기불황으로 전반적인 취업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특히 신규 졸업 청년 세대의 취직난에 빗대어 쓰인 말이다. 취직방하기 시대에는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파견노동이나 프리터 등을 전전하는 불안정 노동자 수가 현격히 증가했다.

2) 'lost generation'의 일본식 축약어로 취직방하기에 사회에 나와 구직활동을 한 세대를 지칭.

3)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 1990년대 영국 정부가 고안해 낸 통계용어. 일본에서는 근로의욕이 없는 청년무직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회의 장기적 전환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법 중 하나로 ‘단카이(団塊) 세대’⁴⁾에서 신인류(新人類)⁵⁾를 거쳐 로스제네까지’라는 식의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파괴력 넘치는 규모로 고도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한 단카이 세대, 단카이 세대가 일군 성장과 풍요의 무임승차 수혜자 신인류, 애초 별 의욕도 없이 장기불황과 취직빙하기라는 차가운 현실에 던져진 로스제네. 고도성장기, 80년대의 경제호황기, 90년대 이후 장기불황기의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이 세대명들은 각각의 시대를 비추는 든든한, 혹은 음울한 아이콘이다. 장기불황기의 일본 젊은이들을 명명하는 로스제네, 여기에 반드시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수년 사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격차사회, 무연(無緣)사회, 고독사(孤獨死) 정도가 더해지면 일본 사회에 대한 그림은 더욱 어두워진다. 이 글에서 살펴보게 될 소토코모리(外こもり)는 이러한 일련의 현상과 용어 속에 위치시켜야 할 것이다.

2. 소토코모리와 그 외연(外延)

소토코모리(外こもり)의 어원은 이보다 좀더 먼저 등장한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되는 히키코모리는 장기간에 걸쳐 집안이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은둔하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사람들을 지칭한다. 히키코모리에 대한 최근 저작에서 이케가미 마사키(池上正樹)는 히키코모리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91년 후생성이 개시한 ‘히키코모리·부등교(不登校)아동복지대책모델사업’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90년대까지만 해도 히키코모리 중에는 등교거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젊은이가 많았고 사회적 인식상으로도 히키코모리를 일시적인 통과점

4) 전후 제1차 베이비붐에 해당하는 1947년에서 1949년 사이 3년간 태어난 800여 만 명의 일본인을 지칭하는 말로, 이들의 성장과 일본고도성장기가 겹치며 노동자로서 혹은 소비자로서 일본의 경제 성장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5) 1980년대 중반부터 사용된 말로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성과 가치관, 행동규범을 가진 젊은이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위화감과 당혹감을 담은 말이다. 1986년 ‘신종어·유행어 대상’에 선정되었으나 현재는 젊은이들을 ‘신인류’라고 부르지 않게 되면서 사어(死語)가 되었다. 대략 1961년에서 1970년에 출생한 사람들이 해당한다.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현 단계에서 히키코모리의 특징을 분석하면 ‘장기화’, ‘고연령화’ 경향이 뚜렷하고, 등교거부의 연장선상에서 히키코모리가 되었다가 그 상태를 장기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외에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히키코모리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케가미는 조사기관에 따른 편차를 전제로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50만에서 100만에 이르는 일본인이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채 집 안에 은둔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⁶⁾

소토코모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또 한 가지 현상으로 ‘프리터’가 있다. 프리터란 정규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비정규직)만을 하며 생활하는 젊은이를 지칭한다. 프리터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다. 1985년 싱어송라이터 나가쿠보 도오루(長久保徹)가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간 막부 말기의 사카모토 료마처럼) ‘취직이라는 틀에서 벗어났어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 위한 가상의 직업’이란 의미로 ‘프리아르바이트’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 미디어와 관련 업체에 확산되어 갔다. 이후 1987년 인력전문회사·리쿠루트사·아르바이트 정보지가 ‘프리터’라는 줄임말을 사용하면서 신조어로 정착해 갔고 1991년에는 『고지엔』(広辞苑) 4판에 기재되기에 이른다.⁷⁾

프리터란 용어가 사용되던 초기 단계만 해도 프리터가 ‘불안정 고용’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프리터의 상황이 크게 변하게 된 것은 아르바이트 임금이 급속히 저하된 버블경제 붕괴 후이다. 버블경제 붕괴 후 취직방해기가 도래하며 기업의 고용감소가 심화되었다. 그 결과 신규 졸업자 중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부는 프리터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즉 ‘버블기 프리터’와 ‘빙하기 프리터’는 그 성격과 조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기에는 편의점 등의 체인점의 증가와 건설

6) 池上正樹, 『ドキュメントひきこもり: ‘長期化’と‘高年齢化’の實態』, 東京: 宝島社, 2010.

7) 『고지엔』에 실린 프리터의 정의는 ① 영어의 프리(free; ‘시간이 자유롭다’는 의미), ② 독일어로 노동을, 일본어로 비정규직고용을 의미하는 아르바이트(arbeit), ③ ‘~하는 사람’이라는 영어의 -er, 혹은 같은 의미의 독일어 -er의 세 가지를 합친 일본식 조어(프리아르바이트의 약어)라고 되어 있다.

경기불이 지속되며 이들 부문에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그때까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고용형태인 아르바이트 구인이 급증했다. 아르바이트 정보지 등도 발행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아르바이트는 아주 익숙한 것이 되어 갔다. 공전의 경기호황 속에 임금이 높은 고급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아서 정식으로 취직하지 않아도 생계를 꾸리는 것이 가능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프리터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만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새로운 고용형태’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인들에게도 어필하게 되었다. 즉 ‘버블기 프리터’와 ‘빙하기 프리터’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스스로 정규직 취직을 거부하고 프리터가 된 것에 비해 후자는 취직을 원하면서도 프리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점이다. 프리터보다 좀 더 최근에 등장한 관련용어로 니트족이 있는데 이는 취업 의욕도 없고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무직자를 지칭한다. 프리터나 니트족 모두 젊은이들의 의욕 상실을 상징하는 말로 많이 쓰인다.

히키코모리에 비해 소토코모리는 ‘소토’(外), 즉 ‘밖’에 나가 은둔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외유형 은둔외톨이’ 정도로 번역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때 말하는 ‘밖’은 해외,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지칭하는데 동남아시아 각국과 인도가 중요한 지점이다.⁸⁾ 소토코모리는 밖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일견 모순어법처럼 들리지만 이들이 보이는 행태는 장소만 옮겨졌을 뿐 상당 정도 히키코모리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모가와 유지가 소개하는 방콕 카오산(Khao San) 지구의 일본 젊은이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⁹⁾ 카오산 지구는 국제 배낭여행자들의 메카로 값싼 숙박시설, 식당, 여행대리점 등이 몰려 있는 곳이다. 최근 수년 사이 이곳을 찾는 일본인들 사이에 하나의 경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관찰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만화방을 주요 거점으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낸다.

8) 소토코모리에 대한 대표적인 저술가인 시모가와 유지는 아시아 국가들 외에 오키나와도 본토로부터 소토코모리 성향을 가진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下川裕治, 『日本を降りる若者たち』, 東京: 講談社, 2007). 사와다 아키히로 역시 본토의 경쟁시스템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젊은이들이 안식과 “자연스러운 자신”을 찾아 “오키나와코모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澤田晃宏, 『沖縄こもりやるせない夏』, 『アエラ』 1123호, 2008).

9) 下川裕治, 『海外ひきこもり族: 外こもりの実情』, 『アジア遊學』 104, 2007.

체재 비용이 떨어지면 일본으로 귀국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한다. 노동형태 면에서는 프리터인 셈이다. 현지 체재가 장기화되면 대개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 아파트를 빌려 자취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하는 장보기 등을 제외하고는 방에 틀어박혀 지낸다. 해외에 나갔지만 일본에서와 비슷한 은둔생활을 하는 것으로, 결국 비행기를 타고 공간이동만 한 셈이다. 이들은 좁은 의미의 소토코모리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해외에 나가 엄밀한 의미에서 은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 각지를 장기간 떠도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배낭여행, 수행, 워킹홀리데이 노동을 반복하며 일본에 장기간 돌아가지 않거나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로, 이 글에서는 넓은 의미의 소토코모리로 간주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어느 경우가 되었건 이들은 일본의 주류사회, 혹은 규범화된 삶의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거부한 젊은이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주류사회란 학력사회, 기업사회, 노동자 윤리로 짜인 전후 일본의 사회시스템을 지칭한다.

1) 카오산의 진성(眞性) 소토코모리

아파트를 나온 건 열흘만이에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은 것도 열흘만. 방 안에서는 항상 팬티 하나로 사니까요. 냉방기가 있지만 전기료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힘들었어요. 웬지 밖으로 나가려면 긴장돼요. 매일 나가 는 사람이라면 문제없을지 모르겠는데, 셔츠에서 땀 냄새는 나지 않을지 머리카락은 더부룩하지 않은지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입니다. 식사요? 거의 방에서 먹어요. 대개 열흘에 한 번 정도 밖에 나가 썬 슈퍼마켓에서 대량으로 사와요. 컵라면은 비싸기 때문에 봉지에 들어 있는 인스턴트 라면을 사요. 쌀 때는 한 봉지에 3바트에 팔 때도 있어요. 십 엔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쌀, 빵, 과자류, 인스턴트 커피, 햄, 치즈, 양파, 양배추…… 영양의 균형에 신경은 써요. 가능한 한 야채는 많이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둡니다. 처음 3일 정도는 웬만하면 야채를 먹으려 합니다. 밥도 하구요. 싸게 살려면 자취밖에 없어요. 5일째 이후는 점점 식재료가 없어져 가기 때문에 인스턴트 라면이 중심. 지금 타이에는 여러 종류 맛의 라

면을 팔기 때문에 질리지 않아요. 드디어 식료가 전부 없어지면 에이, 하고 아파트를 나서는 거죠. 오늘이 딱 그날이에요. 그저께 메일 온 것을 보고 장보는 날과 맞췄어요. 밖으로 나갈 때는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오늘은 편의점에서 전기료와 전화비도 내야 해요. 아파트에서 슈퍼마켓까지는 버스를 타야만 합니다. 대개 두 번 왕복. 맥주나 페트병 음료수도 사기 때문에 도저히 한 번에는 안 돼요. 장보기를 전부 마치고 아파트에 돌아와 문을 찰칵 거는 순간 마음이 놓여요. 이제 한동안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그래도 가장 마음이 놓이는 때는 일본에서 3, 4개월 일한 뒤 방콕으로 돌아왔을 때. 그럭저럭 예정한 액수의 돈이 모이면 일본에서 전화를 해요. 아파트 관리인은 이미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름만 대면 금방 알아요. 전화로 방을 예약하고 마침내 방콕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선 순간은 참을 수 없게 되죠. 맥주로 건배를 합니다. 방에서요? 책을 읽든가, 게임을 하고, 메일을 보내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다른 사이트를 보고…… 텔레비전은 타이어로 하기 때문에 거의 보지 않아요.¹⁰⁾

서른셋의 이 청년은 1년 중 9개월 가량은 방콕에서 보낸다. 일본에서는 주로 가나가와현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3~4개월 월급을 모은 뒤 방콕에 와서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게임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소일하고 있다. 비단 이 청년뿐만 아니라 카오산 지구의 일본인 소토코모리의 기본 스타일은 일본에서 가능한 한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 돈을 모은 뒤 방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보내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공장 등에서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데, 부모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주가 제공되는 곳을 많이 찾는다. 공항에 도착한 다음 날 인력파견회사를 찾고 바로 공장을 정해 그날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식비 등을 제하고 15만에서 20만 엔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방콕의 체재비는 월 7~8만 엔 정도이므로 3, 4개월 일하면 8, 9개월은 방콕서 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토코모리가 모여드는 곳으로는 물론 방콕

10) 下川裕治, 『日本を降りる若者たち』, 東京: 講談社, 2007, 142~144쪽.

의 카오산이 가장 중심지이지만 카오산 지구 외에도 비자 규정이 까다롭지 않은 동남아시아 각지,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프놈펜, 네팔의 포카라, 인도네시아의 발리, 인도, 베트남 등이 있다. 이런 식의 소토코모리 생활을 하는 일본인은 태국에만 7천~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¹¹⁾

2) 아시아를 떠도는 아이들, 혹은 침몰형 배낭여행자

아유미. 싱글 여성. 30세. 200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매년 일본-인도를 오가며 산다. 고등학교 마치고 인도에 흥미를 느껴 [대학에서] 힌디/인도문화 전공을 택했지만, 학비도 비싸고 학교 나온다고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차라리 직접 인도에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 인도로 왔다. 물론 인도 와서 공부하는 하나도 안 했지만. 그게 첫 해외여행이었고 그 뒤로 10년 이상 아시아 각지를 여행하거나 일본-인도를 오가며 살고 있다.

2000년: 3개월간 인도 여행. 역시 인도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2002년: 3~4개월간 인도, 파키스탄, 태국 여행.

2003~2005년: 약 36개월간 일본-한국-홍콩-티벳-네팔-인도-방글라데시-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이란-아르메니아-그루지아-터키-시리아-요르단-레바논-이라크-이집트-다시 인도-네팔-인도-태국-라오스-중국-베트남-캄보디아-일본 여행. 합산하여 1년은 인도에서 보냈다. 그때 요가를 만났다.

2006년: 요가원에서 요가만 했다.

2007년: 6개월간 요가원에서 요가만 했다.

2008년: 6개월간 요가원에서 요가만 했다.

2009년: 6개월간 요가원에서 요가만 했다.

2010년: 6개월간 요가원에서 요가만 했다.

11) 시모가와 유지는 정확한 규모 파악이 힘들지만 타이에만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반면(下川裕治, 『海外ひまこもり族: 外こもりの実情』 『요미우리신문』은 타이에 6천~7천, 아시아 전역에 1만 명 이상으로 추정한다(『讀賣新聞』, 2010. 11. 7).

필요한 돈은 JAL 계열의 유통회사 콜센터에서 임시직으로 일해 번다. 1년에 2~3개월만. 여름철 오추겐(お中元; 백중)과 겨울 오쇼가쓰(お正月) 철 선물 주문이 급증할 때 전화 주문에 응대하는 일이다. 현재 1만 달러 정도 은행예금이 있다. 엄마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아빠는 가끔 양궁하러 다니고, 32세 오빠는 열심히 회사에 다닌다. 아빠와는 자란 후 거의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오빠와는 서로 너무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대화해 보려고 한 적도 없다. 하지만 일본에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같이 산다. 서로 이해하려고도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지금처럼 여행하며 살고 싶어서 결혼 따위는 관심 없다. 몇 년 전에는 일본인들이 다 도피 중인 게 아닌가, 스스로도 도피 중인 게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지금은 행복하다. 특히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행복한 것 같다. 미래에 대해 크게 불안감은 없다. 뭐 어쨌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한다.¹²⁾

앞의 '진성' 소토코모리에 비해 이 경우는 여행도 하고, 현지에 관심도 있고, 무언가 배우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외형상 배낭여행자의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도 많다. 그러나 이들이 일반 배낭여행자와 다른 것은 그 여행기간이 장기이거나 반복적이고, 유럽이나 미주대륙 등이 아니라 아시아에 집착하고, 여행에 부여하는 의미가 단순한 바깥 구경이 아니라 훨씬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씩 '여행'을 한다. 목적지는 인도, 타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네팔, 라오스, 베트남 등(동)남아시아 국가이며 간혹 중국이나 한국이 여정에 포함되기도 한다. 여행 일정이 엄격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마음에 드는 도시가 있으면 수개월씩 '침몰'(沈沒)해 버리기도 한다.

사실 '침몰'이라는 말은 2000년대 들어 소토코모리란 말이 사용되기 이전에 비슷한 의미로 먼저 쓰였던 표현으로, 특히 구라마에 진이치(藏前仁一)가 1994

12) 현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민영이 2011년 1월 인도 리시케시에서 만난 사례로 필자에게 소개해 준 것임.

년 써 낸 책 『여행, 때때로 침몰』¹³⁾이 히트하면서 널리 확산되었다. 구라마에 진이 치는 이 책에서 ‘마음에 드는 도시가 있으면 느긋하게 머물면서 장기 체류한다’는 의미로 ‘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일종의 여행의 기법으로 권유하고 있다. 즉 빠른 속도로 움직여 다니는 여행에 비해 한 지역에 여유 있게 머무는 것을 통해 일반 관광객이나 여행자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지를 제대로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덧붙여지게 되고 소토코모리라는 표현으로 대체되면서는 병리적 인 의미까지 내포하게 되었다. 초기의 ‘침몰’이 당시 일부 배낭여행자들이 보이는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현지 체험여행이라는 선구적인 의미가 강했다면, 배낭여행자들이 늘고 여행이나 현지체험이 아니라 ‘침몰’ 자체를 목적으로 해외출국 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면서 의미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¹⁴⁾ 타이 방콕, 인도의 바라나시나 리시케쉬, 인도네시아 발리, 캄보디아 씨엠립, 네팔 포카라, 터키 이스탄불 등이 특히 선호되는 침몰지이다.

아시아를 방랑하는 일본의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대표적인 베스트셀러로 고바야시 기세이의 『아시안 재패니즈』(ASIAN JAPANESE: アジアン・ジャパニーズ)가 있다.¹⁵⁾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5세 나이로 아시아 여행을 떠났던 저자는 아시아 각지에서 만난 십수 명의 일본 젊은이들의 소상을 소개한다. 이들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본에서의 생활과 일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도피해 온 경우가 많고 미래에 대해 불안과 불확실성을 많이 느낀다. 아시아 여행을 “자신을 되돌아 보”거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신을 확립”시키거나, “새로 시작하는 계기”로 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13) 藏前仁一, 『旅ときどき沈没』, 東京: 本の雑誌社, 1994.

14) 현재 일본 위키피디아에서는 ‘침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이자센(大辭泉; 소학관 발행 국어사전)에 따르면 노는 데 빠져서 일과 용무를 잊어버리는 것. 여기서 의미가 확대되어 장기간의 해외 개인여행에 나선 배낭여행자 등이 여행 본래의 목적인 관광을 중단하고 한 도시에 장기간 체재해 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 특히 동남아시아 도시 중 숙박과 식비가 싸고, 치안이 비교적 좋고, 비자 취득이 용이하며, 풍광이 좋은 곳, 일본인 숙소가 존재하는 곳이 선호된다. ‘침몰’ 자체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을 소토코모리라 부르기도 한다(ja.wikipedia.org).

15) 小林紀晴, 『ASIAN JAPANESE: アジアン・ジャパニーズ』, 東京: 新潮社, 2004.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으며 표준적인 일본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생각도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도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삶의 방식과 자아정체성과 관련해 굉장히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 아시아를 방랑하는 일본인들을 이 글에서는 편의상 구라마에 진이치의 책 제목을 원용하여 ‘침몰형 배낭여행자’로 칭하고자 한다.

편의상 구분했지만 ‘진성 소토코모리’와 ‘침몰형 배낭여행자’가 서로 배타적인 범주는 아니다.¹⁶⁾ 소토코모리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배낭여행자(バックパッカー)에 도달한다는 것이 소토코모리에 대한 주요 논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¹⁷⁾ 배낭여행에 나섰던 젊은이가 도중에 ‘침몰’해 버리는 현상은 이미 1970년대에도 존재했었다. 이들 ‘침몰자’가 여행 도중이 아니고 일본에서 직접 과거에 ‘침몰’했었던 도시로 가 체재하는 것이 소토코모리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가 되면 배낭여행이 일반화되면서 세계 각지에 일본인 배낭여행자들이 주로 묵는 쾌적한 숙소가 등장하고 ‘침몰’하기가 보다 용이해졌다. ‘침몰’했던 이들이 귀국한 뒤에도 여행의도 없이 ‘개척’해 놓은 숙소에 장기 투숙하기 위해 출국하는 양상이 보다 많아졌다. 특히 배낭여행 전성기에는 일본의 취업사정도 나쁘지 않아 원하는 때 일을 하다가 해외 체재 후 귀국하여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방콕의 경우 전통적인 배낭여행자가 아니라 카오산 지구에 침몰만을 목적으로 일본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두로 간주된다.¹⁸⁾

반면 시기와 세대에 따라 소토코모리 내부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

16) 이 외에도 ‘일본탈피형 해외이주자’라 불릴 수 있는 그룹이 있다. 해외에 유학을 갔다가 귀국을 하지 않거나 연기한 채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거주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을 떠난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도 일본 바깥에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거나 일본에서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 살펴보는 소토코모리 현상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소토코모리란 용어가 함축하는 병리적 의미를 너무 느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글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일본탈피형 해외이주자’는 이주라는 맥락에서, 예컨대 벤슨과 오레일리가 최근 제안한 라이프스타일 이주라는 맥락에서 더 적절히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Michaela Benson·Karen O'Reilly, "Migration and the Search for A Better Way of Life : a Critical Exploration of Lifestyle Migr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57(4), 2009).

17) 皿井タレー, 『バンコクで外こもり』, 東京: 河出書房新社, 2010; 安田誠, 『外こもりのススメ』, 東京: 幻冬舎コミックス, 2008; 下川裕治, 『海外ひきこもり族: 外こもりの實情』.

으로 나타난다. 언급한 대로 소토코모리 첫 세대는 장기 배낭여행자 출신의 ‘침몰자’들로 이들은 현재 30대 중반에서 40대에 걸쳐 있다. 그 다음이 실패한 유학생 혹은 퇴락한 유학생 출신으로, 1, 2년 미국 혹은 영국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호주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족을 포함한다. 반면 현재 20대 소토코모리 중에는 프리터나 니트족 성향이 많다.¹⁹⁾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현재의 소토코모리를 둘러싼 환경 중 정보인프라 효과와 관련된 부분이다. 어떤 점에서는 현재의 소토코모리가 이전 세대의 ‘침몰형 배낭여행자’의 최신판이라 할 수 있지만, 양자의 차이는 90년대에는 아직 개발 중에 있던 정보기술들의 현격한 발달과 직결된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 노트북의 발달 덕분에 현재의 소토코모리는 일본 국내에서의 히키코모리적 생활을 방콕 같은 해외 도시에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²⁰⁾ 실제 인터넷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10년째 소토코모리 중인 한 저자는 소토코모리를 권유하는 매뉴얼로서 쓴 책에서 소토코모리가 꼭 가지고 나가야 할 유일한 물건으로 노트북을 꼽고 있다.²¹⁾

3. 시대의 폐색으로부터 탈출, 혹은 신자유주의의 탈락자?

1) 진성 소토코모리의 자폐적 도피

이 일본인 청년들은 왜 일본 밖으로 나가 은둔하거나 떠돌고 있는 것일까? 오랫동안 방콕 카오산 지구의 일본인 소토코모리를 연구·관찰해 온 시모가와 유지는 이들이 소토코모리를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의 사회시스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실패한 젊은이들의 도피성 은둔으로 파악한다. 말하자면 이들은 일

18) 下川裕治, 「外こもりの人びと: タイ日本人宿のNEETたち」, 『新潮』278号, 2005.

19) 下川裕治, 「海外ひきこもり族: 外こもりの實情」.

20) 皿井タレー, 「バンコクで外こもり」.

21) 安田誠, 『外こもりのススメ』. 이 책의 저자 야스다 마코토는 소토코모리 관련 블로그에서 유명한 인사로, 방콕에서 10여 년 체류하며 인터넷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그 경험을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며 적잖은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8년 8월 33세의 나이로 일본인에 의해 살해되어 충격을 주었는데, 범인은 저자가 온라인상에 노출시킨 거주 정보 등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터넷 덕분에 “언제나 여름방학”을 구가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인터넷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셈이다.

본사회 안에서 ‘청년기의 이행’²²⁾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업을 마치고 정식으로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대신 취직할 생각이 없거나 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프리터가 되거나 니트족으로 사는 젊은이들이다. 그러나 표준화된 삶의 방식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강한 일본사회가 이들에게 보내는 시선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반면 타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많은 도시에서는 일본에서라면 차가운 시선을 받을 만한 소토코모리의 빈둥거리는 삶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삶의 패턴이 훨씬 느슨하게 짜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는 나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안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던 프리터나 니트족 젊은이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거기서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30세를 넘어 일본에서 프리티나 히키코모리처럼 살고 있으면 주변의 평판이 시끄러워져요. 금방 본격적인 히키코모리로 간주되기 십상이구요. 자연스럽게 방에서 나가지 않게 되죠. 방에 틀어박혀 오락 채널을 보거나 게임을 해도 결국은 질려 버리죠. 어딘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카오산은 달라요. 그런 인간들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 타이 사람들은 원래 느슨하게 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도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하지 않죠. 친국이에요, 타이는.²³⁾

따라서 소토코모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귀국해 있을 때는 잔업과 휴일근무를 자청하고 씹씹이는 최소한으로 줄여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다시 출국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마침내 다시 아시아의 보금자리로 돌아오면 “혼자서 건배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기쁨과 안도를 느낀다. 그러나 이런 도피성

22)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동기와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성인기를 잇는 이행기로서 청년기는 근대적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의 연결을 토대로 한다. 최근 일본사회에서 이 이행기가 점점 연장되고 이행의 곤란을 겪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개인의 의식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청년의 고용상황의 악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 때문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김영, 『늦지 않는 빙하와 청년의 고용상황』, 『현대일본 생활세계의 시간과 공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워크숍 발표논문집, 2011, 340-341쪽).

23) 下川裕治,「海外ひきこもり族:外こもりの実情」,150頁.

해외은둔의 한계는 자명하다. 당장은 아시아라는 느슨한 사회가 주는 위안에 안주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것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이다. 정규직 취업이라는 무대에서 일단 내려온 사람들이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기에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프리터가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줄어든다. 소토코모리를 하기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2) 방황하는 청춘의 자아 찾기

다른 한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침몰형 소토코모리’까지 시야에 넣으면 소토코모리 현상이 내포하는 보다 ‘성찰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진정한 자아 찾기(自分探し), 지금까지 익숙해진 일본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 ‘진짜 자신’을 찾고 싶다는 욕구는 배낭여행자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고바야시 기세이의 『아시안 재패니즈』에는 상처와 질문을 품고 아시아를 방랑하는 젊은이들의 사연과 일본으로 귀국한 뒤의 스토리도 일부 소개되어 있어, 이들이 아시아를 방랑하며 추구하고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들 스스로의 답을 엿볼 수 있다. 종종 ‘인스턴트 지혜’로 끝나기도 하지만 방랑을 통해 일부는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새로 시작할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한다. 혹은 계속되는 방랑을 이어가기도 하고 결국은 ‘답’을 못 찾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1년 9개월째 아시아를 돌고 있는 20대 후반의 아마자키는 오랫동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회사를 다녔다. “일이 재미없었다. 다른 뭔가를 해도 재미있지 않았다. 놀고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았”던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며 여행비용을 모았다. 인도, 네팔, 파키스탄, 이란, 터키, 태국에 걸쳐 4년간 100만 엔으로 생활 후 귀국했으나, 8개월째 아직 일은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의 일도 결정된 바가 없다. 결국 몇 달 후 다시 여행을 떠났다. 도쿄의 한 사립대 법학부를 졸업한 세키네는 사법시험 준비를 1년간 하다가 변호사가 되는 것에 의구심이 들었다. 무얼 하면 좋을지 모르던 시점에 아시아 여행에 나섰고 일본에 돌아와서는 기후현에 있는 한 도예학교에서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도쿄의 한 국립대 의대를 휴학하고 아시아를 찾는 H.I.는 앞으로 의사가 되어야 할지 말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아시아 여행을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하며 수행에 가까운 여행을 하고 있다. 인도에서 4개월 수행 후 잠시 귀국했으나 다시 인도로 가서 결국은 자살을 한다. 한 국립대 공대 3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인 쓰지하시는 대학 들어갈 때 장래 무얼 하고 싶은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특별한 꿈도 없었고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뭔가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여행에 나섰다. 귀국 후 학교를 마치고 한 회사에 엔지니어로 취직했으나 결국 반년 후 그만두고 대학에 편입해 교사가 되는 과정을 밟기로 했다.

이들은 아시아를 돌며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대체 무얼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특히 별 생각 없이, 별 생각해 볼 겨를 없이 학교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혹은 사회에 나가면서 이런 질문과 당혹감에 부딪히고 자신을 다시 돌아볼 시간을 벌기 위해 여행에 나선다. 반복적인 일상과 규범화된 삶의 패턴에서 이탈해 보고 싶은 욕구에 휩싸이는 것이다.

그런 샐러리맨 생활이 무섭거나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진짜 내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 흥이 식어 버린 기분으로 샐러리맨을 연기하고 있는 자신을 항상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져 갔다. 아침 7시 50분에 일어나 8시 20분에 아파트를 나와 8시 30분에 역의 홈에 선다. 도중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산 캔커피를 다 마실 때쯤이면 열차가 반드시 들어온다. 항상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열차의 문이 열린다.²⁴⁾

[인도에 와서]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 일본에 있으면 뭔가 공허하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

24) 小林紀晴, 『ASIAN JAPANESE: アジアン・ジャパニーズ』, 57~58쪽.

진다. 여기 있으면 너무 분명해진다. 다른 정보들이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TV나 책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항상 들려주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하고 비교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나에게 집중이 된다. 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심플해진다.²⁵⁾

3) 일본적 모더니티가 초래한 폐색(閉塞)

소토코모리들의 ‘진정한 나’를 찾고 싶다는 원망(願望)은 그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20대의 방랑과 자아성찰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일본’이라는 사회시스템을 향한 절망과 적대감, 시대의 폐색에서 이들이 느끼는 위기와 고독감이 자리한다. 그런 점에서 1960년대 말 학생운동의 좌절 후 확산된 서구 젊은이들의 히피운동과 연결되는 지점도 찾을 수 있다. 체제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다른 상황에 내몰린 서구 젊은이들이 정신적 치유를 위해 인도나 티베트의 수행지를 찾던 움직임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발 늦게 동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일본적 모더니티가 내포한 상대적 속도감과 경직성을 고려하면 일본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폐색감은 훨씬 증폭될 수 있다.

시대의 폐색에 숨막혀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아시아 방랑 체험에 근거해 책을 써 낸 영향력 있는 작가들을 통해 비교적 소상히 들을 수 있다. 예컨대 후지와라 신야(藤原新也). 1969년 도쿄예대를 중퇴하고 25살 나이로 3년간 인도 여행을 한 이래 수십 년을 아시아를 방랑한, 말하자면 원조 소토코모리인 셈이다. 그가 써 낸 여러 사진집과 여행기는 많은 젊은이들의 발길을 일본 밖으로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가 인도를 비롯해 아시아를 찾게 된 이유는 “점점 가상현실화하는 일본에서 탈출해 존재의 리얼리티를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도쿄에서의 내 존재는 막연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또는 신체 감각이 점점 멀어지면서 ‘이대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져

25) 리에. 23세 여성.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이민영이 2011년 1월 인도에서 만난 사례.

있었다. …… 모든 것이 추상화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체감각마저 가상현실처럼 취급해야 하는 훗날의 시대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일본을 떠나 인도로 눈을 돌린 이유는 그 가혹한 원시의 자연 속에서 내가 살아 있다는, 지금 이곳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감각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²⁶⁾

타오르는 태양, 숨 막히는 냄새, 서로의 생존을 위해 부딪치는 사람들의 육체, 드러난 지면, 시체가 떠다니는 강, 거대한 나무, 그 사이를 배회하는 코끼리와 소, 혀가 얼얼해지는 음식…… 모든 것이 리얼했어. 이 세계의 천지간에 리얼이 가득했어.²⁷⁾

후지와라보다 약 25년 가까이 늦게 태어나 비슷한 행보를 보여 온 고바야시 기세이(小林紀晴). 그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3세의 나이로 아시아로 향했을 때 느꼈던 절박감은 놀라울 정도로 후지와라를 반복하고 있다.

이상할 만큼 청결하고, 안전하고, 관리되고, 기호화되어 버린 사회 속에서 나는 언젠가는 바코드가 되어 버릴 것이다. 홀리넘쳐 범람하는 정보는 전염병처럼 나라는 개인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타인이 한 말을 내 자신의 말로 착각하게 한다. …… 내가 판단을 하기 전에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 따라서 결단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체험하지 않고도 나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리얼은 없다.²⁸⁾

가난하고 뒤쳐진 세계로 여겨지는 곳에 사실은, 네모난 하늘만 바라보며 만원전 철을 타고 있던 우리들보다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26) 후지와라 신야, 『황천의 개』, 김욱 옮김, 청어람미디어, 2009, 18~19쪽.

27) 후지와라 신야, 『황천의 개』, 306쪽.

28) 小林紀晴, 『ASIAN JAPANESE アジアン・ジャパニーズ』, 366쪽.

그것은 결코 행복만은 아니다. 비참함도, 추함도, 비겁함도, 해학도, 삶도, 죽음도 그곳에선 명백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이 리얼이었다.²⁹⁾

철저하게 균질화되고 매뉴얼화된 삶, 가상현실과도 같은 생활을 해온 젊은 이들이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경험하는 폐색감. 그것은 전후 일본사회가, 길게 보면 메이지 이후 일본이 모더니티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강요한 트라우마라는 것이 소토코모리를 '변호'하는 이들 논자들의 입장이다. 예컨대 그런 자기폐색 상태에서 적절히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자폐적 과대망상으로 귀결된 극단적인 사례가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라는 것이다. 즉 보다 큰 문제는 아사하라 쇼코라는 개인보다 그를 잉태한 사회구조, 그리고 옴진리교 같은 컬트종교에 귀의한 수많은 청년인 것이다.³⁰⁾ 옴진리교로 달려갔던 청년들이나 소토코모리는, 그 깊이는 다름지언정 오늘날 적지 않은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독감과 비슷한 감정에 괴로워했던 사람들이다. 실제 후지와라가 만났던 도쿄대 문학부 출신의 한 청년은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 폐색상태에 빠진 자신의 삶을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유사 옴진리교 신도”라 칭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고도로 관리된 나머지 사람의 감정이나 살아가는 것, 심지어 죽는 것에서조차 ‘리얼리티’를 느끼지 못하고 탈진해 버린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본사회와는 반대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날 것으로 드러나고 부딪히는 ‘아시아’에서 경험한 삶의 리얼리티는 이들에게 일단은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살아 있다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고 ‘일본’을 관망할 수 있는 시야와 거리를 확보해 준다.

38세 미사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 평범한 오피스 일을 시작했지만 정말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하고 한 달간 교육을 받고 간병인이 되었다. 1년

29) 小林紀晴, 『ASIAN JAPANESE アジアン・ジャパニーズ』, 367쪽.

30) 실제 아사하라 쇼코는 1970년대에 인도 리시케시를 찾아 수행을 하고 왔다. 후지와라 신야의 기본 입장은 ‘아사하라 쇼코’는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 전세계적으로나 일본 안에도 수많은 ‘아사하라 쇼코’가 있으며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아사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표출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후지와라 신야, 『황천의 개』).

정도 늘 생각으로 9년간 해오던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인도로 왔다. 일본에서는 사회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항상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 힘든 일을 하니까 내 영혼이 어디 있지? 내가 어디 있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집에 있어도 릴렉스하지 못했다.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편하지 않았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 농사를 짓고 싶다. 음식을 사지 않고 최대한 내가 먹을 건 내가 기르고 싶다.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³¹⁾

4) 신자유주의적 구조전환과 젊은 세대의 차별

앞서 자발적 프리터와 비자발적 프리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소토코모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토코모리의 어원이 된 히키코모리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장기불황의 여파가 히키코모리 현상에서도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경제불황 속에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사에서 해고된 뒤 다시 사회에 돌아가지 못한 상태로 기력을 잃고 은둔해 버리는 새로운 히키코모리층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취업경험자는 히키코모리가 되지 않는다”는 과거의 신화는 붕괴되고 그 결과 ‘사회인 히키코모리’가 급증했다.³²⁾ ‘잃어버린 20년’ 동안 악화된 취업상황과 비정규직 채용의 확산은 고용안정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워킹푸어, 즉 일을 하면서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을 양산시키고 있다.³³⁾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내려 올”(日本を降りる)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인 것이다. 불황에 따른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소토코모리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일본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도 쉽지 않다. 장기불황을 거치며 일본사회가 ‘격차사회’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선 논쟁이 있지만 고령단신자(高齢單身者)의 빈곤과 함께 기성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빈곤율이 상승했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³⁴⁾ 특히 학력이 고용안정성

31)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이민영이 2011년 1월 인도에서 만난 사례.

32) 池上正樹, 『ドキュメント ひきこもり: ‘長期化’と‘高年齢化’の實態』.

33) NHKスペシャル「ワーキングプア」取材班, 『ワーキングプア: 日本を蝕む病』, 東京: ポプラ, 2007.

34) 일본사회의 격차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대표하는 두 학자인 다치바나키 도시아키와 오타케 후미오의 핵심 논지에

에 끼치는 영향도 점점 증가하면서 젊은이 내부에서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³⁵⁾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층의 불안정고용이 단순히 불황효과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속에 “이제 일본에서 신졸(新卒)시장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시장으로의 (청년기)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저하되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젊은 세대를 둘러싼 취업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실제 취직빙하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2005년 이후 경기회복기에도 청년의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청년층의 비정규 고용이 오히려 증가한 점은 젊은 세대의 취업 곤란이 단순히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 준다.³⁶⁾

5) 감시사회 혹은 무연사회(無縁社會)

다른 한편 일본사회 특유의 관계적 특성들 또한 일부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시아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일찍이 1930년대 중반에 규슈의 한 농촌마을에서 장기 현지조사를 수행했던 인류학자 존 엠브리는 타이와 일본사회를 비교하면서 양 사회의 차이를 “느슨하게 조직화된 사회”(a loosely structured social system)와 “강고하게 조직화된 사회”(a tightly structured social system)로 표현한 바 있다.³⁷⁾ 일본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조직화를 하게 만들고 그 조직의 논리에 따르도록 하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소토코모리를 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실제 주변의 시선, 세상의 평판, 특히 지방 같은 경우 감시에 가까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 그런 압력에 부담을 느끼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수십 년 전 엠브리가 일본과 대조되는 사회로 제시한 타이에서 안식을 찾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대해선 정진성의 서평(『격차사회론』의 시사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편, 『일본비평』 4호, 2011)을 참조할 수 있다. 젊은 세대 내부의 격차 심화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격차에 대해선 김영(『독지 않는 빙하와 청년의 고용상황』) 참조.

35) 寺井さち子, 「海外に自己アイデンティティを求める若者達の實態とニート予備君に関する考察」, 『医学と生物学』 154(7), 2010.

36) 김영, 『독지 않는 빙하와 청년의 고용상황』, 364쪽.

37) John Embree, “Thailand : A Loosely Structured Social System”, *American Anthropologist* 52, 1950.

한편 모든 인연(緣)이 끊어진 채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본사회가 '무연사회'화 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연사회'란 말은 NHK가 관련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만든 말로, 2010년 2월 방송된 내용과 뒤이은 단행본³⁸⁾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공감과 우려를 사면서 널리 확산되었다. 같은 해 12월, '무연사회'는 올해의 신조어 톱10에 들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끊기고 아무런 인연 없이 사는 사람이 증가한 상황이 무연사회이고 연고 없는 죽음을 지칭하는 말이 무연사(無緣死)이다.³⁹⁾ NHK방송에 따르면 고독사를 하고 사체를 수습할 사람이 없는 무연사가 매년 3만 2천 건에 달하고 있다. 소토코모리 중에는 가족 친지를 위시해 일본 내 지인들과 '연'을 (거의) 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몇 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본에 귀국하더라도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접촉만 하는 경우가 많다.⁴⁰⁾ 혹은 엄밀한 의미의 절연 상태가 아니더라도 일본에서의 바쁜 일상과 체면치레는 "진정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게" 한다. 오히려 해외의 게스트하우스가 일본인을, 솔직한 하나의 인간이 되어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게 들을 수 있다

4. 구원의 땅, 아시아

[방콕공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마자] 도로 위로 걸쳐진 위험해 보이는 철제 다리들,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들, 그곳을 수많은 차들이 배기

38) NHK '無緣社會プロジェクト' 取材班, 『無緣社會: "無緣死" 三万二千人の衝撃』, 東京: 文藝春秋, 2009.

39)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무연사회화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소위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일본 특유의 규범이라는 지적이다. 『무연사회』(無緣社會)에 대한 인터넷 서점의 독자평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잔혹한 규범을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이다. 사실은 '현명하게 폐를 끼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주술에 갇혀 고독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기록이다". amazon.co.jp

40) 나이 든 노인 중에도 일본과 연을 끊은 채 베트남이나 타이에서 소토코모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개 남성들인 이들은 그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한 뒤 가정이나 지방사회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생활비도 싸고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아시아로 도피해 나온 사람들이다. 그동안 오로지 회사만 바라보고 살아 온 '기업전사'들이 점점 은퇴함에 따라 집이나 지역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도피형 소토코모리'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木村恵子, 『年金だけで外こもり: 老人はタイとベトナムに』, 『アエラ』, 1241号, 2010).

가스를 잔뜩 내뿜으며 달리고 있다. 짐칸에 당장이라도 떨어질 만큼 사람들을 잔뜩 싣고 달리는 트럭……。 벌써 날씨는 무덥다. 강한 햇살에 진한 그림자가 발 끝에 걸리고 선명한 대비로 드러나는 풍경에, 나는 아시아를 느꼈다.⁴¹⁾

[네팔 카트만두공항에 도착해 택시로 이동하면서]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일본, 도쿄의 회사, 서류가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상상하고 그려 봤던 네팔.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실제 거리는 상당히 비슷했다. 그게 나를 흥분시켰다. 벽돌로 만들어진 길. 자동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도로가 이어진다. 먼지가 날린다. 자동차 클랙슨이 울린다. 소가 자동차 앞을 가로질러 간다. 양떼 뒤를 소년이 따라간다. 꼬마들이 자동차 뒤를 쫓고 원색 사리를 입은 여성이 길을 지나간다. 가슴이 설레었다. “어딘지 인디아나 존스 같네요”라고 같이 택시를 탔던 일본인 여성이 말했다.⁴²⁾

[일본으로 귀국해서 나리타공항에서 도쿄로 이동하며] 도심에 가까워지자 처음으로 몰려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셀러리맨 집단이었다. 모든 넥타이가 같은 방향으로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무채색의 양복을 입은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무표정이었다. 아시아에서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얼굴을 한 집단을 본 적이 없었다.⁴³⁾

왜 아시아인가? 지리적 편리성, 경제적 이점이라는 자명한 이유 외에 무엇이 일본의 젊은이들을 아시아로 끌어당기는 것일까? 일본인들의 범주체계 속의 ‘아시아’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메이지유신 이후 전개된 일본의 모더니티는 오랜 서구화의 여정이었다.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슬로건에 집약되어 있듯이 유럽과 미국의 선진적 제도와 삶의 방식은 한 세기 가까이

41) 小林紀晴, 『ASIAN JAPANESE アジアン・ジャパニーズ』, 22~23쪽.

42) 小林紀晴, 『ASIAN JAPANESE アジアン・ジャパニーズ』, 93~94쪽.

43) 小林紀晴, 『ASIAN JAPANESE アジアン・ジャパニーズ』, 242쪽.

일본이 따라잡아야 할 좌표가 되었고, 당연한 결과로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국제화 흐름에서 일본인들의 관심은 구미에 집중되었다. 국제화는 일본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때 말하는 세계는 곧 유럽이나 미국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미를 따라잡고 구미를 능가했음이 찬양되던 바로 그 시점에 적지 않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본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시아에서 치유와 위안을 구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시마무라 마리는 1964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이후의 일본 여성의 해외관광 추이를 리뷰하면서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기의 명품 구입으로 상징되는 구미 쪽 중심의 해외관광으로부터 1990년대 이후 아시아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한다.⁴⁴⁾ 그리고 그 주요 배경으로 일본경제의 불황 속에 점점 폐색감이 짙어지는 일본사회에서 치유에 대한 회구가 강해진 것을 들고 있다. 즉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일본 여성들은 서양과의 다른 점, 세심한 서비스와 마음 씀씀이 등의 가치를 발견하고 “마음이 놓이”거나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삶의 방식”에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해외관광뿐만 아니라 과거 구미 중심의 OL 유학에 비해 최근의 아시아 취직붐,⁴⁵⁾ 60~70년대 구미 남성과의 로맨스 추구 경향에서 90년대 이후 아시아 남성과의 로맨스 추구 경향도⁴⁶⁾ 일본 여성들의 아시아 ‘발견’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물론 이러한 동선의 변화는 젊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970년대 서구로 떠났던 배낭여행자들 역시 80년대 중후반이 되면 아시아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한다.

달리 말해 소토코모리들의 아시아 지향은 일본의 전반적인 아시아 인식의 변화 궤적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서구 국가들로 배낭여행이나 워킹홀리데이를 나갔다가 일정을 끝내고 아시아를 도는 일본의 젊은이들 중 아시아의 “좋은 분위기에 뉘이 나가고 마는”⁴⁷⁾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말하는 좋은 분위기란 느슨한 삶의 방식과 느긋한 사람들의 태도 등 이제 더 이상 일본에서는 찾기 힘든 생활방식이다. 애초에 짝 짜인 규율화된 기업풍토나 학교생활에 소외

44) 島村麻里, 「アジアへ向かう女たち：日本からの観光」, 『アジア遊學』 104, 2007.

45) 酒井千繪, 「中國へ向かう日本人：ブームに終わらないアジア就職の現在」, 『アジア遊學』 104, 2007 참조.

46) 白河桃子, 「バリの日本人妻たちの今」, 『アジア遊學』 104, 2007 참조.

47) 下川裕治, 「海外ひきこもり族：外こもりの實情」.

감을 갖고 있던 젊은이들은 아시아의 이런 분위기를 만나면 그대로 ‘침몰’해 버리고 소토코모리가 되는 출입구에 들어서게 된다.

아시아를 찾는 소토코모리들이 특히 감동하는 것은 아시아의 ‘전근대성’ 혹은 ‘후진성’이다.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아시아는 일본의 안티테제이다. 일본과 아시아는 일련의 대비 속에 쌍을 이룬다. 근대와 전근대, 가상현실과 리얼한 세계, 속도감과 느긋함, 뻑뻑함과 느슨함, 인공과 자연, 질서와 무질서, 인위적 규범과 사람 냄새가 나는 곳, 현세적 속물성과 초월적 영성 등등. 그 대비 쌍은 서구와 비서구에 대한 익숙한 대비의 익숙한 변주이기도 하다. 즉 소토코모리를 포함한 최근 일본인들의 아시아 지향은 일본이 성취한 ‘서구적 모더니티’에 대한 대안과 보완책을 ‘비서구적/비근대적 아시아’에서 구한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거기서 아시아를 전근대, 영적 세계 속에 가두고 싶은 심리를 읽어 내는 것도 결코 어려운 작업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과 시선이 내포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 그 태도가 결국은 당대의 모더니티를 부정하고 비서구 오지를 찾은 히피운동에 계보적으로 닿아 있다는 지적은 식상할 만큼 당연할 것이다. 어쨌든 60~70년대 서구의 ‘그들’은 인도와 티베트로 몰려들었고 거기서 정신적 치유와 영적 안식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오늘날 일본의 소토코모리 역시 아시아에 나와 비로소 안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소토코모리들이 열심히 아시아를 찾고 아시아를 이상화하지만 많은 경우 이들은 아시아에서 ‘거리’를 둔다. 이들이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찾고 묵는 곳은 소위 일본인 지구이다. 예컨대 방콕의 일부 호텔의 경우 90%가 일본인 숙박객이고 카오산 지구에도 일본인들이 주로 묵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의 도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아시아에 장기 체류해도 ‘현지’에 관심 갖거나 현지와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는 좀처럼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아시아는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아시아,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아시아이기 쉽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토코모리들이 정신적 치유를 받는 곳은 외국인을 위한 인도의 고가(高價) 수행공동체처럼 “가장 비속한 욕망이 꿈틀대는 곳”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소토코모리의 아시아 지향이 내포하고 있는 일본판 오리엔탈리즘을 지적하는 것의 용이함만큼 이들의 성찰과 실천이 내포하고 있는 일본사회에 대한 비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급했듯이 진성 소토코모리가 되었던 침몰형 배낭여행자가 되었던 소토코모리의 공통점은 일본의 표준화된 삶의 방식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일본’이라는 시스템의 밖으로 뛰쳐나와 아시아 쪽에 선 순간 확보되는 타자의 시선은 그동안 자신들이 품어 왔던 질문에 답을 주기도 하고 일본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도 한다. 아시아에 흐르는 ‘느긋함과 관용’의 분위기 덕분에 일본에서의 피로와 지침이 치유되었다는 고백은 거꾸로 일본사회의 엄격함과 다름에 대한 관용 부족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한다. 혹은 소수이기는 하나 아시아 현지에 정착하거나 현지인과 결혼을 해 ‘아시아인’으로 살아가기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아시아적 삶의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일본’이 이제는 언제든 돌아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곳, 혹은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인’이기를 유보한 사람들이다.

5. 나오기: 탈출과 도피, 그리고 성찰적 기획까지

[카이로, 방콕 등의] 일본인들이 모여드는 곳에서 하루 종일 마작을 하거나 독서를 하면서 반동반동 살았습니다. 히키코모리나 니트족을 허락해 주는 부모가 있으면 일본에 있었지만 우리 집은 무리예요.⁴⁸⁾

인도의 이쉬람[수행공동체]에 가면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중에 절반이 일본 애들이야. 일본 애들의 절반 정도로 한국 애들이 있고, 이들에게 왜 왔느냐고 물으면 한결같은 대답이 “무언가를 찾으러 왔다”, “무언가 찾아야 한다”야.⁴⁹⁾

48) 福井洋平, 「日本に帰れない外にもりな人びと」, 『アエラ』925号, 2005, 60쪽.

소토코모리가 문제적인 것은 이들이 일본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적 교육시스템과 노동구조 속에서 청년기는 학업을 마치고 취직하여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시기로, 일본사회에서 이런 규범적 기대는 다른 어떤 사회 이상으로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으로서의 첫단계에서 근면과 성실함으로 매진하고 있어야 할 젊은이들이 일본 밖으로 나아가 은둔하거나 방랑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쉬우며, 실제 ‘소토코모리’란 단어에 함축된 부정적 의미도 청년기라는 생애단계에 대한 일본사회의 기대에서 연유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토코모리가 되는 배경에는 자폐적 도피, 경쟁에서의 낙오와 부적응, 인간관계의 실패, 일본 시스템에 대한 거부, 진정한 자아 찾기 욕구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소토코모리 현상에 대해 점점 더 심화되는 전지구화 과정 속에 진행되는 삶의 방식의 선택과 자아 찾기라는 측면을 고찰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소토코모리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특수화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전지구화와 고도 현대가 교차하는 현재적 맥락에서 진행되는 보다 보편성을 갖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아시안 재패니즈』에 등장하는 일본인 젊은이들의 아시아 방랑에 대한 스스로의 의미부여는 기든스가 말하는 자아의 전기적 서사(biographical narratives)에 다름 아니다. 기든스에 따르면 탈전통적 질서를 그 본질로 하고 있는 현대에서 자아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찰적으로 조직되는 분투가 된다. 그것은 개인이 생애 주기를 거쳐 다수의 선택지 속에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의 궤도이다. 확대된 세계, 다양해진 선택지 속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성찰은 자아 구성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정된 경로 속에서 삶을 질서 짓던 ‘전통’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 즉 선택은 항상 위험과 불확실을 수반한다. 더군다나 고도 현대가 끌어들이는 시공간적 압축 속에 지역적

49) 인도연구자 정채성과 개인 면담(2011.5.28).

인 것과 지구적인 것이 일상적으로 교차하면서 성찰적 자아 기획으로서 삶의 방식의 선택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⁵⁰⁾

진성 소토코모리가 되었던 침몰형 배낭여행자가 되었던 이들은 일단 자신의 의지로 아시아를 '선택'하고, 일본보다는 아시아가 더 살아갈 만한 곳, 살아갈 수 있는 활로를 주는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설령 그곳이 일시적 피난처에 지나지 않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곳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이면에는 일본적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과 회의가 자리하고 있음도 살펴본 대로이다. 즉 소토코모리적 삶의 방식은 고도 현대를 살아가는 일본 젊은이들의 자아 궤적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무언가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의지는 현대의 성찰적 자아 기획에 과도한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게 만든다. 고도 현대 속의 성찰성과 자아에 대해 스윗맨이 부르디외의 개념을 빌려 “아비투스화된 성찰성 혹은 성찰적 아비투스”(habitual reflexivity or reflexive habitus)⁵¹⁾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거의 본성처럼 성찰성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아비투스가 구조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전제할 때 성찰적 아비투스란 개념은 성찰적 자아 기획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좀더 역사적·구조적 질문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아마도 지구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남북문제 및 그로 인한 상대적인 경제적 특권과 이동의 용이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으로 시야를 좁히면 소토코모리를 선택한 사람들의 속성과 배경에 대한 좀더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동아시아의 압축적 모더니티가 초래한 혼돈, 즉 전통적 조직사회, 근대적 성취주의, 고도 현대의 성찰적 자아 기획의 혼재에서 오는 혼돈에 관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폐적인 도피성 소토코모리에서 진정한 자아 찾기에 나선 성찰적 침몰자까지의 폭넓은 스펙트럼, 그리고 소토코모리를 만들어 내는 다양하면서도 서로 상반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 같이

50) 앤소니 기든스,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권기돈 옮김, 새물결, 1997.

51) Paul Sweetman, “Twenty-first century dis-ease? Habitual reflexivity or the reflexive habitus?”, *The Sociological Review* 51(4), 2003.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현재 일본의 젊은이들은 고도 현대가 요구하는 성찰적 자아기획의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서도 동시에 아직 견고한 표준적인 성취 모델, 전통적 조직사회의 규범의 자장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소토코모리는 일본적 모더니티의 성격에 대한 독해를 가능케 하는 의미심장한 창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경우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

국문초록

소토코모리, 일본 밖을 떠도는 젊은이들 : 시대의 폐색으로부터 탈출, 혹은 신자유주의의 희생양? | 권숙인

투고일자: 2011년 6월 15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7월 5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7월 21일

이 글에서는 현재 일본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토코모리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소토코모리는 일본 밖, 특히 ‘아시아’로 나가 은둔(“진성 소토코모리”)하거나 장기간 아시아 각지를 떠도는 일본의 젊은이들(“침몰형 배낭여행자”)을 지칭한다. 어느 경우가 되었건 일본의 주류 사회, 혹은 규범화된 삶의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거부한 젊은이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주류 사회란 학력사회, 기업사회, 노동자 윤리로 짜인 전후 일본의 사회시스템을 지칭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토코모리가 되는 배경에는 청년기 이행에 실패하거나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의 자폐적 도피, 방황하는 청춘의 자아 찾기, 일본적 모더니티가 초래한 폐색, 신자유주의적 고용 구조의 확산, 일본사회의 관계적 특수성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물론 이들은 서로 겹치며 일부 일본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시아를 찾게 했을 것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젊은이들이 향하는 곳이 ‘아시아’란 점이다. 이때 말하는 ‘아시아’는 근대화가 덜 되었고 분위기가 느슨한 동남아시아의 도시들이며, ‘아시아’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일본적 모더니티의 안티테제로 설정된 ‘아시아’에서 치유와 구원을 구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태도에서는 분명 오리엔탈리즘의 혐의가 읽히지만, 소토코모리의 아시아 지향이 내포하고 있는 일본사회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 또한 명백하다. 요컨대 90년대 이후 침몰형 배낭여행자의 등장과 최근 소토코모리의 출현은 한편으로는 불황과 구조조정 속에 일본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좌절에 덧붙여 전지구화가 일상이 되어 버린 고도 현대가 개인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성찰적 자아기획의 압력, 나아가 동아시아의 압축적 모더니티가 초래한 혼돈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소토코모리, 침몰형 배낭여행자, 청년기 이행, 일본적 모더니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성찰적 자아기획

공동화된 지방사회와 젊은 여성들 : 핸드폰 소설, 『소악마 아게하』, 그리고 ‘불황문화’ | 김효진

투고일자: 2011년 7월 1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7월 12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7월 21일

본 논문에서는 하야미즈 겐로의 분석(2008)에 기대어, 2000년대 이후 핸드폰 소설과 호스티스 잡지인 『소악마 아게하』를 교외와 지방에 사는 젊은 여성들의 삶과 그들이 향유하는 하위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매체로 규정하고 이를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양상 및 지방의 하위문화로 잘 알려진 80년대 양키문화와의 관련 위에서 고찰한다. 소설 『연공』에서 등장하는 핸드폰에 관한 기술은 현대 일본 젊은이들에게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Sotokomori': Escaping from the Blockage of Japanese Modernity or Scapegoats of Neoliberalism? _ KWEON Suk In

This paper reviews and explores the group of young Japanese people who are referred to as 'sotokomori'. Sotokomori are the young Japanese who migrate out of Japan into 'Asian' cities in order to lead an idle and secluded life ("genuine sotokomori"), or those who wander about Asian countrie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sunken backpackers"). Whether they are 'genuine sotokomori' or 'sunken backpackers', sotokomori are the people who either rejected or could not adjust to the way of life that has been established as 'normal' in the post-war Japanese society. There are several social and personal backgrounds for them to become sotokomori; failure to bridge oneself from school to work environments, falling behind in competition, the quest for self-identity, suffocation from Japanese modernity, expanding neoliberal employment structure, and stress from personal relationships. What is interesting about sotokomori movement is the fact that their destinations are within 'Asia', especially the towns and citie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are less modernized and more 'relaxed' in the atmosphere than Japan. Asia does not include Japan by definition of this context. There is a sense of orientalism among those young Japanese people who head out to the Asian cities in search of emotional healing and psychological salvations from the Japanese society, for these 'Asian cities' supposedly symbolize the antithesis of Japan's modernity. At the same time, the emergence of 'sunken backpackers' since the 1990s and the recent rise in the number of sotokomori can be best understood as the epitome of their anxiety and frustrations toward Japan's prolonged economic recess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which evidently have created highly-elevated pressure for reflexive project of self-making as well as the chaos caused by the compressed Japanese modernity.

Keywords : sotokomori, sunken backpackers, transition to adulthood, Japanese modernity, neoliberal restructuring, reflexive project of self-identity

Young Women in the Empty Country: Cellphone Novels, *Koakuma Ageha*, and the 'Depression Culture' in Contemporary Japan _ KIM Hyo Jin

In this paper, on the basis of Hayamizu's analysis on cellphone novels(2008), I examine cellphone novels and *Koakuma Ageha*, a magazine specialized for 'hostess', as the media that reflects the subculture as well as the everyday life of the young women in the secluded suburbs in the 2000s. And I will also address the development of new communication and how the influence of Yankee culture of the 80s are represented in those media. *Koizora*, one of the most famous cellphone novels, describes the use of cellphones in a very realistic manner, faithful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